

— 각 이해주체는 원유가 현실화 방안마련에 즉각 동참하라 —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원유가 현실화는 시급한 당면과제다. 그런데도 생존권을 요구하는 농가들의 절규에 눈감고 귀막고서, 하기 쉬운 말로 생산비 절감, 농가 자구대책만 운운한다면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그나마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의 요구로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속내를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으나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유업체나,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하나 제대로 내 놓지 못하고 뒷짐지고 있는 정부나, 어디서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더 이상은 안된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 농가만이 발버둥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농가들은 진작부터 원유가 현실화가 절실하면서도 혹여나 노심초사 하면서 그 동안 버텨왔고, 업체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우유 덤판매를 근절시키고자 발 벗고 뛰는 것도 농가다. 그런데도 유업체는 협조는커녕 어쩔 수 없다며 한발 빼고, 허울 좋은 공존공생의 관계 또한 제 편할때만 갖다붙이면서, 진정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이 땅의 낙농산업, 낙농가는 없다. 유업체는 진정성을 담아 원유가 현실화를 위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공동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조기 원유가 현실화 및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국의 낙농가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만약, 단순히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시간 끌기만 한다면, 농가를 기만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5월 31일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 낙농가와 함께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8. 4. 24(목)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원 · 도(연합)지회장 일동